

가족체계모델과 청소년의 적응*

전 귀 연†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Family System Model and Adolescent Adjustment - The Olson Circumplex and Beavers Systems Models -

Gwee-Yeon Je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of Olson Circumplex Model and Beavers Systems Model related to adolescent adjustment. The 830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and adolescents of Juvenile Judge in the city of Taegu. The survey instruments were FACESⅢ, SFI-I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Depression Scale, and Delinquency Scale.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MANOVA, Scheffé test we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amily system classification method on Olson Circumplex Model was partially useful in evaluating anxiety, depression,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 2) Family system classification method on Beavers Systems Model was partially useful in evaluat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Korean J Human Ecology* 2(1):38~51, 1999)

KEY WORDS : Olson Circumplex Model, Beavers Systems Model, Adolescent Adjustment.

I. 서론

지난 20년간 가족이론과 가족치료 문헌에서 가족기능에 대한 몇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모델들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된 차원 뿐 아니라 건전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차원을 개념화한다. 그 중 1980년대에 가족치료 문헌에서 중요한 두개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가족기능에 관한 Beavers의 Systems 모델과 Olson의 Circumplex 모델로 이 두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

*본 논문은 97년도 경북대학교 공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1370 Sankyuk-dong, Puk-ku, Taegu, 702-701, Korea
Tel : 053-950-6212, Fax : 053-950-6209
E-mail : gyjeon@bh.kyungpook.ac.kr

적 가족을 분류하기 위한 유형론을 제공한다.

각각의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요인을 확인했는데 하나는 관계요인(relationship factor)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 혹은 적응성요인(change 또는 adaptability factor)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모델은 유사개념을 이용한 동등 모델로 보여졌다(Beavers & Voeller, 1983;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그러나 두 모델간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인 탐색연구는 이 두개의 모델이 가족기능의 다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Green, Kolevzon, & Vosler, 1985;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는 모델이 같은 가족생활의 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어느 모델이 가족생활의 건강정도를 판단하는 데 보다 민감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되어 왔으나(Green 등, 1988) 가족체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Olson의 Circumplex 모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 일반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제가 표출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이 모델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표출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을 포함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대한 연구들은 Olson의 Circumplex 모델이 국내 가족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전귀연, 1997). 그러나 국내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한 연구(전귀연, 1997)가 있었으나 이 연구 역시 연구대상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으로 인해 분립심사 중인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로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둔다. 두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두 모델이 동일하게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그 모델 중의 어느 것이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가족 생활의 측면에 보다 민감한지를 결정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몇가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표집된 연구대상에게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 모두를 적용시켰다. 청소년의 적응을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불안, 우울 및 비행을 선택하여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Olson의 Circumplex 모델

Olson의 Circumplex 모델은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 1983)이 가족 기능에 관련된 문헌에서 제시된 50가지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군집분석 기법을 써서 가족기능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성의 주요한 두개의 요인-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단방향성의 세번째 요인-가족의사소통-을 결정했다. 이들은 이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차원을 가족과정 또는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여겨 상호조합을 이루는 유형론적 모델 즉 Circumplex 모델을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은 모델에 직접 도식화되지 않고 다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Olson 등이 결정한 두개의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들 중의 첫번째는 관계요인으로 가족응집성이라 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된다(Olson 등, 1983). 이 요인은 외부세계에 대한 가족경계의 투과성과 가족 내부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평가한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정서적 유대는 개인이나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양방향성이다.

Olson 등이 규정한 두번째 중요한 요인은 변화와 유연성 요인으로 가족적응성이라 부른다. 이것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Olson 등, 1983) 권력, 협상양식, 관계에 있어서의 규칙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건전하지 못하므로 또한 양방향성이라 묘사된다.

세번째 요인은 가족의사소통이다. Olson 등(1983)은 훌륭한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수준에서 기능적 수준이 되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매차원(facilitating dimens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행동은 가족 개개인의 바램이나, 감정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결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변하게 된다.

Olson 등(1979, 1983)은 가족체계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세가지 요인 중 응집성과 적응성을 사용했다. 직교적이고 양방향성의 두 요인을 기초로 하여 16개 유형의 가족체계를 분류했다(Olson, 1993). 그러나 가족체계연구시에 16개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3종류의 가족체계로 나누어 체계유형을 연구하거나(Olson, 1985; Lavee & Olson, 1991), FACES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Ⅲ)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의 4종류로 가족체계를 나누어 연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Olson의 Circumplex 모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기능간의 관계를 양방향성, 즉 곡선적(curvilinear)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Olson 등은 Circumplex 모델을 사정하기 위해 두가지 종류의 척도를 개발했는데 내적 시각으로 가족체계를 사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 FACES)와 외적 시각으로 외부관찰자가 가족체계를 진단하는 임상적 측정척도(Clinical Rating Scale : CRS)가 있다.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관련한 경험적 검증과정에서 모델의 곡선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즉 과다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응집성과 적응성을

지닌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보인다는 가설이 일관성있게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이 자기보고식척도인 FACES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적되었다(Hampson et al., 1991; Lee, 1988; Perosa & Perosa, 1990).

이에 대해 Olson(1991)은 FACES의 선형성 및 응집성과 적응성이 극단적으로 과다한 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FACESⅡ와 Ⅲ에 의한 새로운 분류방법과 함께 3차원적 Circumplex 모델을 제안하였다(Olson et al., 1992). 즉 FACESⅢ를 사용하여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했을 때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극단가족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FACESⅢ에 대한 새로운 가족체계유형 분류법을 제안하면서도 Olson(1993)은 외부 관찰자 척도를 통한 임상연구 결과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족의 건강한 기능성과 곡선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관성있게 보여주는 것에 힘입어 FACES의 측정방법상의 문제를 극복한다면 자기보고식 척도로도 곡선성을 밝혀질 수 있다는 입장에 새로운 척도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중이다.

Olson 등(1992)이 개정한 FACES 점수에 의한 가족체계분류법에 따르면 과거의 분류법에 의해 균형가족이나 중간범위가족으로 분류된 가족은 중간범위가족이나 약간 균형적인 가족으로 분류되며, 과거에 극단가족으로 분류된 가족은 점수에 따라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극단가족 등 다양하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Olson 등이 제안한 새로운 분류방법에 따라 가족체계집단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2.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청소년의 적응

Olson의 Circumplex 모델의 기본 가설은 극단가족보다 균형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게 기능적이라는 데 있다. 즉,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만이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시험하려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는 Russell(1979)이 청소년 여아를 가진 비임상적인 31개의 가족을 연구한 것이다. ‘위기’에 직면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수준이 적절한 반면에, 잘 기능하지 못하

는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극히 높거나 낮았다. 이어 계속된 연구들(Barnes & Olson, 1985; Bell, 1982; Portner, 1981;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은 Olson의 Circumplex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였다.

한편 국내연구로, 임용우(1984)는 정상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균형가족보다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했으며 유순덕(1987)은 39개의 임상가족과 117개의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기자녀의 지각을 통해 가족체계유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Olson의 Circumplex 모델이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상분(1992)은 정상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문화에 맞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경미(1990)는 OCM과 달리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체계유형의 자녀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므로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능력을 키워나갈 것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홍성애, 1988)과 건전한 성격형성(고승자, 1985)에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Olson 등(1991: 1992)이 FACES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체계분류법을 제안하기 전에 이루어진 연구로써 과거의 분류법에 의한 해석이므로 새로운 분류법에 의해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Beavers의 Systems 모델

Beavers의 Systems 모델은 Beavers와 그의 동료가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생활에 임상적 연구적용을 하여 연역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청소년의 정신분열증과 그들 가족원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으나(Beavers, Blumberg, Timken, & Weiner, 1965), 연구가 거듭되면서 건강하고 잘 적응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뿐 아니라 정신분열적이고 신경성적 문제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Beavers, 1977; 1981; Kelsey-Smith & Beavers, 1981; Lewis, Beavers, Gossett, & Phillips, 1976).

Beavers의 Systems 모델은 Von Bertalanffy(1968)의 일반 체계이론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가족은 물론 개인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체계는 혼란스러운 역기능적 체계에서 엄격한 통제지향적 체계로, 보다 더 나아가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고 적응적인 체계 즉, 역량이 있는 체계로 나아간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주요한 차원은, ‘가족 역량(family competence)’에 대한 개념으로 가족의 구조, 유연성 및 역량을 다루고 있다. Beavers(1977)는 이 차원이 직선적이고 무한하다고 가정했다.

Beavers와 Voeller(1983)는 “가족이 보다 융통성있고 적응적일수록 보다 더 조정가능하고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며 기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역량이 있는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분화(differentiation)를 더욱 격려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적응력(즉, 변화)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가정한다.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대조적으로 Beavers는 가족 적응성의 무한한 연속체를 가정했다.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두번째 차원은 Beavers(1977)가 가족 양식(family style)이라 명명한 관계적 차원이다. 이 차원은 외부세계와 관련해서 가족이 가지는 패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Erikson(1963)에 의해 개발되어 Stierlin(1972)이 가출 청소년을 다룬 연구에서 활용한 구심성 가족상호작용과 원심성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구심성 가족은 외부세계보다는 가족내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반면, 원심성의 가족은 가족내부에서 보다 외부세계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얻는다. Beavers(Beavers, 1977; Beavers & Voeller, 1983)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극단적으로 원심적이거나 구심적이지 않는 형태 즉, 균형적인 가족양식을 가진다.

직선적이고 수평적 차원으로 가족역량요인을, 곡선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으로 가족양식의 요인을 활용하여 Beavers의 Systems 모델은 아홉가지 가족유형의 가족

체계를 분류했다. Beaver와 그의 동료들은 부모나 자녀들의 개인적 기능에 대한 언급없이 현존의 가족체계를 묘사한 Olson과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가족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기능을 묘사했다. 9가지 가족유형은 가족기능 및 역기능의 정도에 따라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 중간범위가족(midrange family), 경계선상의 가족(borderline family),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severely dysfunctional family)의 4가지 가족체계유형으로 나뉘어진다.

4. Beavers의 Systems 모델과 청소년의 적응

임상적 집단에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최초의 연구는 Beavers, Blumberg, Timken과 Weiner(1965)에 의해 이루어졌다. Beavers 등이 입원환자 중 9명의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신분열증이 아닌 정신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내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 비록 두 집단이 정서적으로 심하게 혼란스러울지라도 정신분열증환자의 어머니와 비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사이에는 대화형태에 분명한 차이점이 밝혀졌다. 어머니의 반응을 명확함, 회피, 변동으로 구분한 결과, 이 중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는 명확한 응답은 극히 적게 했으며 회피와 변동에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계속되어진 모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Green et al., 1985; Lewis et al., 1976; Hampson, et al., 1988;)은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기본적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즉, 가족건강/역량수준이 높은 가족유형이 인생의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불행한 가족 구성원이 더 적은 반면, 가족건강/역량수준이 낮은 가족유형은 혼란된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공인타당도와 준거타당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Beavers의 Systems 모델을 임상적 모집단에 적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의해 얻어졌다. 그러나 Beavers 등이 제안한 가족건강/역량과 가족양식의 개념이 모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내용임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족은 물론 일반 가족을 포함한 연구로 연구범위가 확대되어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Olson의 Circumplex 모델와는 달리 Beaver의 Systems

모델의 경우, 이론적 소개(장진경, 1995)와 실증적 연구(전귀연, 1997)가 있으나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가족적 특성이 서구의 그것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Beaver의 Systems 모델의 적용은 서구사회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모델의 한국가족에의 활용타당성 여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비교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은 모두 가족기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임상적 실제 사이를 관련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며 가족기능의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가족을 분류하려는 유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Green, Kolevzon과 Vosler(1985)가 확인한 주된 차이점의 하나는 Olson의 Circumplex 모델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족치료문헌에서 나온 다양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Olson의 Circumplex 모델은 보다 강한 경험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Beavers의 Systems 모델은 가족들을 임상관찰해서 연역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보다 더 강한 현상학적이고 임상적인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두 모델 모두 건강과 병리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두개의 중요한 가족 기능의 차원을 확인했다. 첫 번째 차원은 관계 차원인데 이것은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서 가족응집력으로 그리고 Beavers의 Systems 모델에서는 가족양식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차원은 변화차원인데 그것은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서는 가족적응성으로, Beavers의 Systems 모델에서는 가족건강/역량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차원들 중 관계차원에 대해서는 개념상의 일치를 보였으나 변화의 차원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Olson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형태안정성(morphostatic: 낮은 적응성)과 형태발생성(morphogenic: 높은 적응성)이 잘 균형잡혀있는 가족이므로 안정성과 변화가 알맞게 이루어져 있는 가족으로 너무 많은 변화(혼란)나 너무 적은 변화(엄격성)는 역기능과 관련된다고 한다. 대조

적으로 Beavers는 적응성을 효과적인 가족 기능과 직선적인 관계로 본다. Beavers의 Systems 모델은 적응성을 역량과 관련짓고 그것을 연속체상에 두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다고 했다.

Lee(1988)는 두 모델사이의 변화차원에 대한 혼란은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능력과 구조의 특징으로서의 변화사이의 구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Lee에 따르면 Olson의 적응성은 일차적 변화로서,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구조내에 본래 존재하는 변화의 정도를 의미하나 Beavers의 적응성은 이차적 변화로서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능력이다.

Olson의 Circumplex 모델(Olson et al., 1983)과 Beavers의 Systems 모델(Beavers & Voeller, 1983)의 초기 비교는 두 모델이 가족 기능의 유사구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으나 더 많은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보다 최근의 비교들(Beavers & Voeller, 1985; Green et al., 1985; Hampson et al., 1988; Lee, 1988)은 두 모델이 가족기능의 관계차원을 개념화하는 데는 동등하지만 가족 적응성의 개념화에는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가리킨다. Green 등(1985)과 Hampson 등(1988)에 의해 제시된 경험상의 증거와 Lee(1988)에 의한 개념상의 비평들은 모델들이 동등한 구조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정한 후에 행복한 가족과 불행한 가족을 구별해내는 이 비동등한 구조들의 상대적 장점을 토론하지는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가족구조와 개인적인 심리병리적 수준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두 모델의 민감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우울, 불안 및 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의 남녀학생과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의 청소년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를 7개구로 나눈 후 난수표를 사용하여 3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구에서 남·녀 중·고등학교 각1개

교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학교의 2학년에서 한 학급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체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 표집된 학생은 620명이었고 분류원 청소년은 250명이었다.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자료처리의 대상으로 포함된 대상자는 830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 변인	구분	일반	분류심사원
		청소년	청소년
		빈도 (%)	빈도 (%)
성 별	남	285 (34.3)	227 (27.3)
	여	299 (36.0)	19 (2.3)
연 령	13 ~ 15 세	283 (34.1)	89 (10.7)
	16 ~ 18 세	301 (36.3)	157 (18.9)
학 력 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0 (1.2)
	중 학교 재학	277 (33.4)	67 (8.1)
	중 학교 퇴학	.	65 (7.8)
	중 학교 졸업	.	14 (1.7)
	고등학교 재학	307 (37.0)	58 (7.0)
	고등학교 퇴학	.	27 (3.3)
	고등학교 졸업	.	2 (0.2)
	무 응답	.	3 (0.4)
종 교	불 교	191 (23.0)	96 (11.6)
	기 독 교	113 (13.6)	51 (6.1)
	천 주 교	63 (7.6)	12 (1.4)
	무 교	197 (23.7)	84 (10.1)
	기 타	20 (2.4)	3 (0.4)
아버지의 학력	중 졸 이하	135 (16.3)	125 (15.1)
	고퇴 ~ 고졸	283 (34.1)	74 (8.9)
	전문대졸이상	154 (18.6)	12 (1.4)
	해 당 안 됨	11 (1.3)	33 (4.0)
	무 응답	1 (0.1)	2 (0.2)
어머니의 학력	중 졸 이하	243 (29.3)	158 (19.0)
	고퇴 ~ 고졸	272 (32.8)	53 (6.4)
	전문대졸이상	65 (7.8)	6 (0.7)
	해 당 안 됨	4 (0.5)	26 (3.1)
	무 응답	.	3 (0.4)
아버지의 직업	무 직	10 (1.2)	8 (1.0)
	전 문 직	63 (7.6)	22 (2.7)
	관 리 직	55 (6.6)	8 (1.0)
	사 무 직	120 (14.5)	18 (2.2)
	판매·서비스직	157 (18.9)	46 (5.5)
	생 산 직	149 (18.0)	109 (13.1)
	기 타	10 (1.2)	4 (0.5)
	해 당 안 됨	15 (1.8)	28 (3.4)
	무 응답	5 (0.6)	3 (0.4)

배경변인	구분	일반	분류심사원
		청소년	청소년
		빈도 (%)	빈도 (%)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278 (33.5)	103 (12.4)
	전문직	22 (2.7)	1 (0.1)
	관리직	8 (1.0)	.
	사무직	35 (4.2)	11 (1.3)
	판매·서비스직	138 (16.6)	72 (8.7)
	생산직	73 (8.8)	24 (2.9)
	기타	20 (2.4)	9 (1.1)
	해당안됨	5 (0.6)	26 (3.1)
	무응답	5 (0.6)	.

2. 측정도구

질문지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질문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척도,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에 관한 척도,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Circumplex 모델의 두개의 주요한 차원(응집성과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FACESⅢ)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Ⅲ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 의해 측정된다.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본 연구자가 응집성요인 및 적응성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3, .72이었다. 연구대상자에 의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한 평균은 각각 33.65, 29.75이고 표준편차는 각각 7.17과 7.02였다.

최근에 Olson 등(1992)이 새로이 제안한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에 의하면,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

결된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적응성 수준에 따라서는 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은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으로 나뉘어진다.

2)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 척도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에 대한 평가는 Beavers, Hampson 및 Hulgus(1990)가 개발한 가족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 SFI II)를 변안하였다. SFI II는 Beavers의 Systems 모델상의 가족체계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2개요인 및 가족기능과 관련된 다른 3개요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36항목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가족건강/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19개문항, 가족양식은 5개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자가 가족건강/역량요인과 가족양식에 대하여 신뢰도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2, .37으로 가족양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분류는 가족건강/역량차원에 의한 방법을 택했다.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 유형은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으로 나뉘어진다. 연구대상자에 의한 가족건강/역량차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7.36과 9.90이었다.

3) 불안 및 우울척도

불안이란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끼게 되는 우려 또는 공포 등의 일반화된 감정' 이라고 정의하며 우울은 '인간의 정서적인 기분변화로 슬픔, 침울함, 외로움,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미연(1998)이 기존의 불안척도와 우울척도를 요인별 문항에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문항수를 줄여 재구성한 불안(6문항)과 우울(1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불

안 6개 문항과 우울 8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는 전체 변량의 6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 및 우울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8, .89이었다. 연구 대상자에 의한 불안과 우울에 대한 평균은 각각 15.38, 18.77이고 표준편차는 각각 4.90과 6.92였다.

4) 비행척도

비행은 청소년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반지위비행, 약물과 관련한 약물비행, 성과 폭력에 관련된 성 및 폭력 비행, 재산과 관련한 재산비행으로 나누어지며, 비행유형별 거트만척도와 국내 청소년 비행연구에 사용된 비행항목(김준호·이동원, 1996)을 참조하여 요인분석한 뒤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개 요인들은 일반지위비행 8개 문항, 재산비행 4개 문항, 성 및 폭력비행 6개 문항, 그리고 약물비행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척도는 전체 변량의 6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8, .83, .83, .7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에 의한 비행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1.01과 9.33이었다.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8년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998년 7월 8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집에 의해 선정된 학교와 분류원을 방문하여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검사는 오전에 실시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솔직하게 성실껏 답하도록 당부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870부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

료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 척도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83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했으며 각 척도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인 분석과 직각회전을 이용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Olson의 Circumplex 모델의 경우에는 Olson 등이 새로이 제안한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에 의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MANOVA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경우에는 Beavers 등(1990)이 제안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MANOVA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MANOVA후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는 구체적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청소년의 적응

Olson 등(1992)이 제안한 FACESⅢ에 의한 집단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이 나타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사용하여 각 수준별 집단을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수준별 집단분류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수준별 집단분류

수준	1	2	3	4	5	6	7	8	비고
가족응집성	10-19	20-25	26-29	30-33	34-36	37-40	41-45	46-50	M=33.65 SD=7.17
가족적응성	10-16	17-22	23-25	26-29	30-33	34-36	37-43	44-50	M=29.75 SD=7.02

가족 체계유형은 <표 2>에서 얻어진 가족응집성 수준(1-8)과 가족적응성 수준(1-8)을 합한 것을 2로 나누어 얻은 점수로 집단을 분류하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

수 준	1-2	3-4	5-6	7-8
가족체계 유형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 가족
빈도(%)	66(8.0)	270(32.5)	364(43.9)	130(15.7)

<표 3>을 보면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수가 많은 편이고 균형가족과 극단가족의 수는 적은 편이다.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 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체계유형	.915	8.330	9.00	2022.59	.0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8.33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 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579.130	19533.320	193.043	23.449	8.232	.000
우울	2871.018	37343.615	957.006	44.830	21.347	.000
비행	890.775	71997.220	296.925	86.431	3.435	.017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 우울 및 비행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의 적응	가족체계유형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불안	극단가족	17.388	5.268	a
	중간범위가족	15.960	4.562	ac
	약간 균형적인 가족	14.962	5.000	bc
	균형가족	14.298	4.731	b
우울	극단가족	22.731	8.078	a
	중간범위가족	20.257	6.712	a
	약간 균형적인 가족	17.803	6.470	b
	균형가족	16.107	6.507	b
비행	극단가족	33.582	10.824	a
	중간범위가족	31.412	8.806	ab
	약간 균형적인 가족	30.924	9.809	ab
	균형가족	29.260	7.864	b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 우울 및 비행에서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균형 가족 순으로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 비행이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극단가족의 청소년이 균형 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불안정도를 보였으며 우울에서는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의 청소년이 균형 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우울정도를 보였다. 비행에서는 극단가족의 청소년이 균형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비행정도를 보였으나 다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극단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간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균형 가족간에는 유의미한 집단차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나 극단가족과 균형가족간에는 불안, 우울 및 비행 모두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이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불안, 우울 및 비행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보다 잘하는 반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낮은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은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균형가족에 비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고 균형가족에 비해 비행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에는

Olson의 가족체계적 접근방법이 어느 정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간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균형적인 가족간의 유의미한 집단차를 보이지 않은 것은 가정생활만족도나 적응과 관련된 더 많은 수의 변인과 관련한 추후 연구를 통해서만이 불안, 우울 및 비행이라는 종속변인의 속성때문인지 아니면 Olson의 Circumplex 모델의 분류방법의 한계때문인지가 분명해지리라 사료된다.

가족체계유형 중 균형가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이다.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근접성이 높으며, 또한 가족이 상황적이거나 발달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해 나갈수록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을 적게 느끼며 비행행동을 적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원사이 심리적으로 유대가 적고 가족구성원들이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변화에 적응적이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비행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 요망된다.

2. Beavers의 Systems 모델과 청소년의 적응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해 분류된 가족체계유형은 <표 7>과 같다.

<표 7>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

가족체계유형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빈도(%)	32(3.9)	141(17.0)	606(73.0)	51(6.1)

<표 7>을 보면 중간범위 가족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계선상의 가족이다. 건강한 가족과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의 수는 적은 편이다.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체계유형	.901	9.658	9.00	2005.55	.00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9.658,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817.870	19168.086	272.623	23.205	11.748	.000
우울	3673.602	35936.167	1224.534	43.506	28.146	.000
비행	255.084	71700.439	85.028	86.804	.979	.402

<표 9>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인 중 불안과 우울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견하는 데는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분류 방법이 유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불안과 우울에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의 적응	가족체계유형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불안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	17.875	6.020	a
	경계선상의 가족	16.887	4.536	a
	중간범위 가족	15.102	4.731	b
	건강한 가족	13.157	5.693	b
우울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	24.281	8.607	a
	경계선상의 가족	22.170	7.080	a
	중간범위 가족	18.064	6.319	b
	건강한 가족	14.882	7.025	c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과 우울에서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

강한 가족 순으로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이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에서는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청소년이 경계선상의 가족과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낮은 불안 정도를 보였다. 우울에서는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외 다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건강한 가족과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간, 건강한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 중간범위 가족과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간, 중간범위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에는 우울과 불안 모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간에는 불안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우울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네 집단간의 분명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지만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들이 경계선상의 가족과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들보다 정서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Beavers의 가족체계유형 분류가 어느 정도 유용함을 보여준다.

Beavers의 Systems 모델(Beavers & Voeller 1983; Beavers & Hampson, 1993)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은 최적의 가족과 적절한 가족 유형을 포함하는 가족으로 최적의 가족과 적절한 가족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가족구성원간에 친밀감을 추구하며 또한 실현된다. 각 구성원들의 개성이 존중되고 개발되어지며 구성원간의 경계가 명확하며 투과적이다. 각 개인의 선택과 사고가 존중되며 타협을 차이점을 수용하고 공동 목표를 향한 노력하여 간주하여 허용하고 고무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훌륭한 문제 해결력을 나타낸다. 가족구성원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개방적이고 변화를 수용한다. 다른 유형의 가족집단에 비해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역할을 정의하고 수용한다. 건강한 가족 역시 갈등을 유발하지만 대부분 가족과 가족생활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기꺼이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건강한 가족은 최적으로나 적절하게 기능하므로 가족은 심리적

으로 스트레스를 거의 겪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가족과 비교해 볼 때 경계선상의 가족은 기쁨, 만족, 친밀감이 거의 없는 통계에 몰두하고 개별 가족성원들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거의 찾지 않는다. 의사소통이 거칠고 상당한 혼돈을 유발하며 타인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통제의 노력을 함으로써 가족분위기는 만족이나 기쁨은 거의 보이지 않고 우울과 분노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가족유형의 자녀들은 불안정한 성격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은 불명확하고 비효과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상호 경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타협기술의 부재, 우울하고 냉소적인 말투의 만연, 개인의 개별성이나 차이점에 대한 부정,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학대 등이 특징인 가족인데 이러한 가족유형의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에서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청소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어느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행에서 네 집단간에, 불안과 우울에서 심하게 역기능적인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에, 그리고 불안에서 중간범위가족과 건강한 가족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Olson의 Circumplex 모델과 Beavers의 Systems 모델이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보다 더 잘 예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분류심사원에 있는 청소년 830명이었고 사용된 도구는 가족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FACES III과 SFI - II와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및 비행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량 변량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청소년의 적응을 판단하는데 Olson의 Circumplex 모델이 Beavers의 Systems 모델보다 유용하였다. 불안과 우울의 경우에는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

체계유형분류법과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분류법이 모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비행을 예견하는데는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분류가 유용하며 Beavers의 Systems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분류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델의 유용성의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첫째, 청소년의 심리적 과정에서의 역기능은 가족체계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나 부적응 행동 등을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족내부의 역동적 인간관계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둘째,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건강/역량 차원에 역점을 두어 가족체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생활교육자나 가족상담가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활동을 할 때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체계를 사정할 때 FACES와 SFI-II를 활용하면 가족내 청소년자녀의 적응성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구시내 청소년에 제한된 점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후 요망된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지각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기술하는 가족체계 유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일치도, 지각의 차이점, 세대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서만 가족체계 유형을 평가했다. 그러나 관찰적 척도를 통한 가족체계 유형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유용성 검증이 더욱 분명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Olson이 FACES의 한계를 인정한 Circumplex 모델의 검증에는 외부 관찰자에 의한 가족체계사정이 더욱 유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기준이 모두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 개발 및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경화(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수연, 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30-39.
3.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101-112.
4. 김준호, 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5. 장진경(1997). 가족적응력과 가족기능간의 관계 :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Beavers의 체계모델의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1-12.
6. 전귀연(1997).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Beavers의 Systems모델의 유용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201-212.
7. 최규현(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140-152.
8. Anthony, J.E.(1970). The impact of mental and physical illness on family l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138-146.
9. Barnes, H.,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438-447.
10. Beavers, W.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11. Beavers, W.R.(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299-307.

12. Beavers, W.R., Blumberg, S., Timken, K.R., Weiner, M.D.(1965). Communication pattern of mothers of schizophrenics. *Family Process* 4:95-104.
13. Beavers, J., Hampson, R.B.(199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pp.73-103). NY/London: The Guilford Press.
14. Beavers, J., Hampson, R.B., Hulgus, Y.F., Beavers, W.R.(1986). Coping in families with a retarded child. *Family Process* 24:398-405.
15. Beavers, W.R., Voeller, M.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85-98.
16. Beavers, W.R., Voeller, M.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85-98.
17. Bell, R.(1982).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in runaway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18. Bertalanffy, L. von.(1968). *General Systems Theory: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Brazillier.
19.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20.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Gresham, F.(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1024-1027.
21. Garbarino, J., Sebes, J., Schellenbach, L.(1984).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174-183.
22. Green, R.G., Kolevzon, M.F., Vosler, N.R.(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23. Hampson, R.B., Beavers, W.R., Hulgus, Y.F.(1988). Commentary: Comparing the Beavers and Circumplex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7:85-92.
24. Kelsey-Smith, M., Beavers, W.R.(1981). Family assessment: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amily system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3-12.
25.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995-998.
26. Lee, C.(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73-85.
27. Lewis, J.M., Beavers, W.R., Gossett, J.T.,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 New York: Brunner/ Mazel.
28. Olson, D.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 (pp.104-136). NY/London: The Guilford Press.
29. Olson, D.H.(1985). Commentary: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 *Family Process* 24:203-207.
30. Olson, D.H.(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 (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74-79.
31.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Wilson, M.(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N.
32. Olson, D.H., Portner, J., Lavee, Y.(1985). *FACES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33. Olson, D.H., Russell, C.S.,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3-28.
34. Olson, D.H., Sprenkle, D.,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 Process* 18:3-28.
35. Portner, J.(1981).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teraction types and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Paul: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36. Rodick, J.D., Henggeler, S.W., Hanson, C.L.(1986). An evaluation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37. Russell, C.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29-45.
38.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hene, R.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39. Sprenkle, D.H., Olson, D.H.(1978).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Empirical study of clinic and non-clinic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59-74.
40. Stierlin, H.(1974).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Quadrangle.